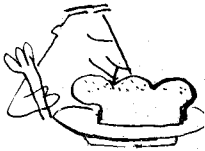


食糧資源의 需給展望



經濟·技術調査센터가 懸案問題로 提起하고 있는 「食糧資源의 需給展望과 開發方向」이라는 研究報告書를 얼마전 發表하였다.

이 報告書는 糧穀을 包含한 全體食品의 需給推計에 의한 食品需給計劃(Food balance 1973~81)의 作成을 처음 試圖한 것으로서 業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國民營養構造의 變動推移를 計測하고 이에 根據하여 마련한 食品需給計劃試案에 의하면 糧穀의 경우 1973년의 경우 總糧穀의 自給도는 71%이었으나 1981년에는 生産量 10,455千 $\%$, 需要 12,284千 $\%$ 으로 自給도는 85.1%에 達하므로써 糧穀自給의 展望이 比較的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同期間中の 糧穀의 需給狀況을 穀種別로 보면 主要糧穀中 米穀, 大麥, 薯類 및 油脂作物은 自給이 되며 小麥과 雜穀은 土質 및 氣候條件 등으로 인하여 生産이 不振하여 自給이 어렵다는 것으로 展望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가 1981년까지 計測된 우리나라 食品需給의 長期指標를 綜合, 食品種類別로 提示한 開發方向은 다음과 같다.

米穀: 總需要 5,03萬 $\%$ 을 自給하기 위하여 73~81年間に 年平均 3.05%의 增産이 이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米價의 自律市場價格誘導를 통한 年平均 10%의 實質米價引上造作으로 2%의 增産을 가능케하고 나머지 1.05

%의 年間增産率은 種子改良, 營農技術改善, 水利施設의 擴充 등 生産性 提高를 통하여 達成토록 한다(生産의 價格彈力性을 0.2로 하였을 때)

大麥: 總需要가 1981년에 2,796千 $\%$ 으로 이를 完全 自給하려면 年間平均 3.58%씩의 增産이 이룩되어야 하며 二重麥價制 價格豫示制 등 強化에 의하여 年平均 農家受取價格 10%引上을 保障한다면 2.5%의 增産이 可能하며 나머지 1.08%의 增産率은 쌀과 小麥에 對한 價格代替效果에 따른 需要增大와 土地利用率의 提高, 土地生産性的 擴大政策으로 達成시킨다.

薯類: 澱粉食品의 不足을 메꾸기 위한 戰略品目으로서 土地生産性이 米麥에 比하여 높을 뿐만 아니라 國民의 消費嗜好를 效率적으로 改善하면 豫測된 需要 1981년의 2,005千 $\%$ 은 充分히 自給할 수 있다. 計測된 年間必要增産率은 約 12.63%인바 國內需要市場만 保障되면 이를 超過達成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

食糧需給의 長期指標(糧穀)

(單位:千%)

年度		1973	1974	1976	1981	81-73 (倍率)
米 穀	生 產	3,957	4,154	4,407	5,030	1.27
	需 要	4,442	4,154	4,407	5,030	1.13
	自 給 度(%)	89.1	100.0	100.0	100.0	
보 리	生 產	2,186	2,186	2,344	2,796	1.33
	需 要	1,460	2,807	2,920	2,796	1.14
	自 給 度(%)	85.8	77.9	80.3	100.0	
小 麥	生 產	256	281	331	451	1.76
	需 要	1,949	1,765	1,668	1,551	0.80
	自 給 度(%)	13.1	15.9	19.8	29.1	
雜 穀	生 產	117	124	138	173	1.48
	需 要	517	545	645	902	1.74
	自 給 度(%)	22.6	22.8	21.4	19.2	
감 자	生 產	95	114	125	150	1.58
	需 要	95	114	125	150	1.58
	自 給 度(%)	100.0	100.0	100.0	100.0	
고 구 마	生 產	669	787	1,048	1,855	2.77
	需 要	669	787	1,048	1,855	2.77
	自 給 度(%)	100.0	100.0	100.0	100.0	
計	生 產	7,204	7,646	8,393	10,455	1.45
	需 要	10,132	10,172	10,813	12,284	1.21
	自 給 度(%)	71.1	75.1	77.6	85.1	

食糧需給의 長期指標(油料)

(單位:千%)

年度		1973	1974	1976	1981	81-73
大 豆	生 產	300.1	331.2	351.7	376.2	1.25
	需 要	340.1	344.2	351.7	376.2	1.11
	自 給 度(%)	88.2	96.2	100.0	100.0	
落 花 生	生 產	5.7	5.9	6.6	8.9	1.56
	需 要	5.7	5.9	6.6	8.9	1.56
	自 給 度(%)	100.0	100.0	100.0	100.0	
其他豆類	生 產	30.9	31.0	31.3	31.3	1.01
	需 要	30.9	31.0	31.3	31.3	1.01
	自 給 度(%)	100.0	100.0	100.0	100.0	
참 깨	生 產	17.2	18.9	23.3	30.5	1.77
	需 要	17.2	19.0	23.3	30.5	1.77
	自 給 度(%)	100.0	100.0	100.0	100.0	
들 깨	生 產	7.9	8.0	8.7	10.4	1.32
	需 要	7.9	8.0	8.7	10.4	1.32
	自 給 度(%)	100.0	100.0	100.0	100.0	
油 菜	生 產	60.3	72.6	97.0	157.6	2.61
	需 要	60.3	72.6	97.0	157.6	2.61
	自 給 度(%)	100.0	100.0	100.0	100.0	
其他種實	生 產	12.9	16.3	23.3	33.7	2.61
	需 要	13.0	16.4	23.3	33.7	2.59
	自 給 度(%)	99.2	99.4	100.0	100.0	
計	生 產	435.0	483.9	541.9	648.6	1.49
	需 要	475.1	487.1	541.9	648.6	1.37
	自 給 度(%)	91.6	97.3	100.0	100.0	

따라서 全體澱粉食品의 不足分을 薯類에 의하여 可能한 限 메구도록 하고 나머지 需要에 未達하는 供給不足分을 小麥으로 充當토록 하는 澱粉食品의 總體的 自給政策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小麥 : 所得變動에 의하여 澱粉食品으로부터 단백질 食品으로 食品需要構造가 轉換됨에 따라 需要가 急增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따라서 本推計에서의 小麥需要는 1981年 1,551千%인데 國內生産은 451千%에 불과하여 自給率은 2.19%에 不過하다.

單純히 計測된 自體供給量과 制限된 用途451千%만 確保하기 위해서도 年間 7.32%씩의 增産率確保가 必要하다. 約 7%의 年間 增産率은 生産의 價格彈力性을 0.35로 보았을 때 20%의 實質價格引上이 市場自律機能에 의하여 維持케 하고 國內産 原小麥의 生産增大를 도모함으로써 이를 確保토록 한다.

한편 需要는 消費者價格을 年間 約 20% 程度 實質引上을 보장하면 約 37.2% 需要抑制을 期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바 이를 大麥과 薯類에 의하여 代替토록 勸獎하고 나머지 重要不足分에 限해서 導入토록 年次別 計劃을 세워 執行할 것이며 이를 통해 澱粉食品의 自給率 提高와 外貨節約效果를 同時에 期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雜穀 : 飼料用 需要의 增大로 因하여 急激히 그 需要가 增大 1981年 總需要 902千%에 達한다. 自給率은 19.2%로 自給可能量은 173千%이다. 1981年 173千%을 自給하기 위해서는 年間 約 7.3%의 增産이 要求된다. 生産의 價格彈力性을 0.2로 보았을 때 價格을 10% 程度의 上昇을 보장하면 約 2%의 增産效果를 期할 수 있는 바 나머지 約 5.3%는 개간事業, 種子改良, 合理的인 技術導入등을 통하여 그 增産을 期함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畜産食品의 需要增大는

飼料需要의 增大를 면할 수 없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不得已 需要量의 約 80%를 導入해야 한다.

油料作物의 需要는 1981年 約 648.6千%으로 豫測된다.

이를 國內生産으로 自給키 위하여는 年間 增産率 約 5.1%를 達成해야 한다. 특히 大豆의 國內消費를 節約, 이를 自給토록 하며 充分한 脂質을 供給키 위해 種實類를 劃期的으로 增産토록 한다.

大豆는 畦畔活用, 種子改良과 함께 段收를 提高함으로써 增産을 促進하고 특히 油菜增産의 積極化를 통하여 大豆需要를 部分的으로 代替토록 해야 할 것이다.

全體 食品需要 : 澱粉食品의 경우 食糧作物과 飼料作物로 區分하여 土地利用計劃을 樹立할 것이며 이에 根據한 糧穀需給計劃이 上位計劃인 食品需給計劃의 政策方向을 策定시켜야 할 것이며 한편 所得增大에 따른 단백질 食品需要의 急增추세를 지나치게 過少評價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畜産物 : 熱量需要로 볼 때 1973年 總 2,146.2千Kcal에서 1981年 6,240.5千Kcal로 增大, 年間 約 11.9%씩 增大하여 期間中 2.45倍로 늘어났다.

이같이 늘어나는 畜産物 食品의 需要를 充當하기 위해서는 生産者價格이 보장되고 穀物 飼料 依存型畜産을 과감히 脫皮하고 國內飼料 自給型畜産으로 開發되어야 한다. 특히 企業 畜産을 勸獎할 金融 稅制上支援策도 아울러 과감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水産物(魚介類) : 總需要는 1971年 總熱量으로 1,909.7千Kcal에서 1981年 5,763.3千Kcal로 늘어났다. 推計目標度인 1981년에 5,763.3千Kcal를 供給키 위해서는 年間 增加率 約 14.8%를 確保해야 된다.